

국민 60% '차별금지법' 필요하다

종교자유정책연구 설문조사 결과 발표

우리나라 국민 10명 중 6명은 '차별금지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종교단체가 정치인을 통해 요구나 입장을 관철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는 시각도 70%에 달했다.

종교자유정책연구원(대표 박광서)은 7월 2일 종교자유와 정교분리에 대한 시민 의식 설문조사 실시 결과를 발표했다.

"종교 및 차별금지법 관련 여론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개신교계의 반대로 입법이 좌절된 '차별금지법'을 알고 있는 사람은 51.5%로 가까스로 과반을 넘겼지만 차별금지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59.8%에 달했다. 반면 '필요없다'는 응답은 17.6%에 불과했다.

차별금지법 내용 중 논란이 되고 있는 4가지 사안 중 법안에 포함하지 말아야 할 것에 대한 의견은 다소 엇갈렸다.

설문 참여자 중 14.3%가 종교가 포함되지 말아야 한다고 답했으며, '성적지향, 성별정체성(13.7%)',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10.9%)', '전과(10.7%)'가 뒤를 이었다.

4가지 모두 포함돼야 한다는 의견은 23.8%이었으며, 모두 포함해서는 안된다는 의견은 8.3%에 그쳤다.

이번 설문조사에서는 정교분리 원칙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높게 형성돼 있음을 알 수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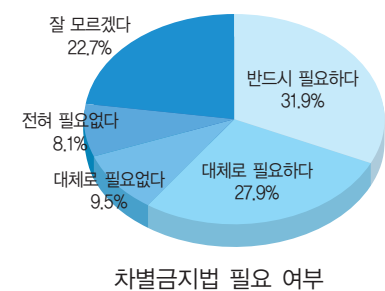
50%정도만 차별금지법 인식

종교 가르침·사회법 충돌시 사회법 따른다는 의견 높아

'정교분리' 국민 공감대 형성돼

선거 때 마다 후보자들이 종교단체를 찾아가는 것에 대해서는 '문제 있다'고 보는 답변이 57.5%로 과반을 넘겼다.

종교단체가 정치인들을 통해 자신들의 요구나 입장을 관철하려는 것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다고 보는 시각이 69.4%로, 전혀 문제가 없다(10.9%)거나 대체로 문제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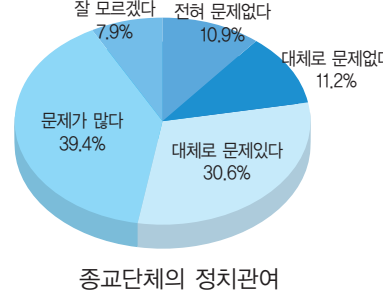


(11.2%)고 보는 시각보다 월등히 높은 수치를 보였다.

종교가 우리사회에 영향을 미친다고 응답한 비율은 64.1%에 달했고 '대체로 영향이 없다(12.1%)' '전혀 영향이 없다(10.9%)'는 답변이 뒤를 이었다.

또한, 조사결과 국민의 절반 이상이 사회법을 기준으로 삼고 있지만, 종교적 가르침을 우선시하거나 사회법과 종교적 가르침을 사이에 두고 판단을 유보하는 국민이 적지 않았다.

실제 응답자 중 사회법을 따르겠다는 입장이 54.1%로 가장 높았고, 종교적 가르침이라는 입장이 18.2%, 잘 모르겠다는 입장이 27.7%로 나타났다.



종자연은 이 같은 조사결과에 대해 "국민들은 종교의 사회적 영향력이 상당하다고 인식하고 있지만 종교가 상식적이고 합리적이지 못한 모습을 보일 때는 동의하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면서도 "사회적 규범으로 적지 않은 수가 종교적 가르침을 따르겠다거나 판단을 유보한 점은, 사회적 갈등의 불씨가 상당함을 보여주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종교로 인한 사회적 갈등의 증폭은 민주사회의 발전을 가로막는 큰 장애물"이라며 "'비합리적인 종교적 도그마에서 벗어나는 것이 민주사회에서 종교가 가야 할 길'"이라고 강조했다.

신종일 기자 motp79@hyunbul.com

"병사들의 비바람 막아주겠다"

신임 군승 11명, 1일 자승 스님에 임관 신고

군승 46기(군종 71기) 신임 군승 11명이 7월 1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4층 접견실에서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 스님을 예방하고 임관 신고식을 가졌다. 이날 신임 군승들은 신임 군승 11명은 이 자리에서 자승 스님에게 각각의 소속과 근무지를 알리고 앞으로의 다짐을 밝혔다.

육군 서재승(학운) 군승은 "10년전 울곡부대에서 군생활을 했는데 이번에 다시 같은 곳으로 발령이 났다. 당시 군생활을 하며 병사들이 어떤 점을 괴로워하고 힘들어 하는지 알게 됐다. 그때의 그 마음을 잊지 않고 앞으로도 병사들의 비바람을 막아줄 수 있는 군법사가 되도록 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이준용(농산) 군승은 사회 공익을 위해

일하는 신장과 같은 역할을 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그는 "군인들이 이 사회를 잘 수호할 수 있도록 그들을 격려하고 위로해 줄 것"이라고 의지를 다졌다.

신성우(성해) 군승은 연기법을 바탕으로 포교활동을 펼칠 것이라고 포부를 전했다. 그는 "장병들의 현재 임무가 얼마나 가치 있고 숭고한 일인지를 연기법을 통해 확인시켜주고자 한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총무원장 자승 스님은 "여러분의 다짐이 꼭 현실이 될 수 있도록 자발성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신임군법사 11명은 3개월 동안 입대전 교육과 2개월의 군종정교 교육을 마치고 6월 28일 충북 괴산 학생군사학교에서 임관식을 마쳤다.

정혜숙 기자



신임 군승 11명은 7월 1일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 스님을 예방하고 임관 신고를 했다.

멈추지 않는 멘토들 인기 헤민 스님 상반기 1위

불교전문서점 베스트셀러 30

불교계 최대 서점인 '조계종 불교전문서점'은 1월 1일부터 판매한 상반기 자료를 집계해 '2013년 상반기 베스트셀러 30'을 6월 30일 발표했다.



상반기 1위는 헤민 스님의 <멈추면 비로소 보이는 것들>이 선정됐으며 2위에는 법륜 스님의 <기도>, 3위는 불필 스님의 <영원에서 영원으로>가 집계됐다.

4위에는 정목 스님의 <달팽이가 느려도 늦지 않다>가 장식했으나 절판됐다. 5위는 월호 스님이 3월 펴낸 <삶이 값진 것은 사라지기 때문입니다>가 위치했다.

이밖에 지난 5월 방한한 틱낫한 스님의 저서 <내권이 30위 안에 이름을 올렸다. <틱낫한 명상>(불광), <화>(명진 출판), <틱낫한 스님의 금강경>(장경각), <오늘도 두려움 없이>(김영사) 등이다. (02)2031-2070

김주일 기자 kimji4217@hyunbul.com

전북 세계순례대회 운영 조직 법인화된다

불교, 개신교, 천주교, 원불교의 4대종단이 전북 전주, 완주, 익산, 김제의 각 종교 성지를 순례하는 '아름다운 순례길 세계순례대회'의 지속적인 개최를 위해 조직위원회를 발족하고 법인화를 추진한다.

4대종단 종교지도자와 관계자, 전문가로 구성된 세계순례대회 조직위는 6월 11일 세계순례대회의 세계화, 명소화를 추진하고 안정적인 운영을 도모하기 위해 발기인 총회를 열고 법인화를 위한 첫걸음을 내딛었다.

전라북도도와 세계순례대회 조직위는 올해 순례대회를 9월 28일부터 10월 5일까지 8일간 각 종교성지를 순례하는 240km의 구간에서 열기로 결정했다.

지난해 보다 대폭 늘어난 4억5000만 원(국비 1억5000만 원, 도비 1억5000만 원, 시·군비 1억5000만 원)의 예산으로 '아름다운 순례, 홀로 또 함께(Alone And

Together)'라는 주제로 순례대회를 진행할 계획이다.

특히 가족과 청소년, 대학생들의 자기성찰을 주제로 한 '길에서 만나는 인문학' 종교지도자로 구성된 '멘토와 함께' 내면

로의 순례 '힐링의 순례'도 함께 진행한다. 이밖에 금산사, 송광사, 나비위 성당 등에서 사랑과 희망의 종자나눔, 상생의 풍등날리기, 종교 음식박람회 등이 개최된다.

또 각종의 세계적인 외국인 종교지도자를 초청해 각 종교간의 대화를 나누는 세미나도 계획하고 있다. 불교계에서는 7월 4일 조직위원회를 구성하고 보통스님(전북불교회관 원감)을 조직위원장으로 집행위원장에 송민호불자를 위촉하고 순례팀장 등 조직을 구성했다. 불교조직위에서는 불교관련 순례길 안내 등 다양한 자원봉사 활동과 완주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할 예정이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방황하는 청년들 대안 찾아 산사로

조계종 청년출가학교 개교... 8일까지 진행

방황하는 20대 청년들을 위로하고 출가를 통한 대안적 삶을 제시하기 위한 출가학교가 열렸다. 조계종 교육원(원장 현승)은 6월 30일부터 7월 8일까지 해남 미항사에서 '2013 청년출가학교'를 개교했다.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로 열린 올해 출가학교에는 면접을 거쳐 선발된 20대 청년 43

명이 전원 참가했다.

참가자들은 첫 날에는 사찰문화를 익혔으며 학교장인 법인스님(교육원 교육부장)에게 '붓다에게 길을 묻다'라는 주제의 강의를 들었다. 또한 정목 스님의 '마음살핌 마음나눔', 조성택 고려대 교수의 '청년을 위한 불교', 강신주 박사의 '철학 삶을 만

나다', 조한해정 연세대 교수가 '청춘은 무엇으로 사는가' 등의 시대의 멘토들의 강의도 일찍 내내 이어졌다.

참가자들은 또 날마다 예불과 참선하고 틈틈이 달마산 산행, 땅길 바다길 걷기 등을 하며 자연과 함께 하는 시간도 가졌다.

교육원은 "청년출가학교를 통해 젊은 세대에게 출가가 우리시대 삶의 대안임을 제시하고, 출가수행의 길을 바르게 안내해 자신의 삶으로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줄 것"이라고 밝혔다. <현장 기사 차주 상보> 신종일 기자

불교계, 국정원 사건 진상규명 촉구

실천승가회 등 보신각서 시국법회

국가정보원 대선 개입 의혹에서 불거진 국정원 규탄 촛불집회와 각계의 시국선언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불교계도 목소리를 보탤 예정이다.

실천불교전국승가회를 비롯한 정정승가회를 위한대중결사, 불교환경연대 등 불교 시민사회단체는 7월 1일 서울 종로 보신각에서 국정원 헌법유린을 규탄하는 시국법회를 열었다. 이날 행사에는 원불교, 기독교 단체 또한 함께 참여해 연대의지를 밝혔다.

이들은 한날 이억 기관으로 전락한 국

정원을 비판하고 정부의 진정된 참회를 바란다는 국정원사건에 대한 철저한 진상 규명 등을 촉구했다.

실천불교전국승가회 상임대표 최후 스님은 "역사상 헌법을 유린당한 일이 몇 차례 있었다"며 "평등한 세상이 되도록 가르침을 주는 것이 불법이다. 그를 통해 화합과 평화를 이루어내야 할 사람들이 승가고 불자다"라고 참가자들을 독려했다.

이날 행사에는 조계종 노동위원장 종호 스님, 실천승가회 공동대표 범정 스님, 정후 스님, 불교사회연구소장 법안 스님을 비롯 정계인사로는 민주당 임수경 의원, 박흥근 의원이 참석했다. 배현진 수습기자



실천승가회 등 불교계 사회단체는 7월 1일 종로 보신각에서 국정원 선거 개입을 규탄하는 시국법회를 열었다.

(사)대한불교응공조계종

귀의 삼보하옵고...



종정 명진 석법운 대종사

새로운 불교, 혁신적인 종지종풍으로 이어가기 위하여 석가세존으로부터 법맥을 이어온 저희 종단은 구태불교를 개혁하고, 시대가 요구하는 올바른 불교의 모습을 정립해 나갈 것입니다. 한국불교 중흥과 불교세계를 염원하는 사단법인 대한불교응공조계종은 본 종단과 함께하실 제방의 청정승려의 많은 동참을 바랍니다.

종정 명진 석법운 대종사

원로의장 보운

원로총무 송담 원로위원 월현 원로위원 월각 원로위원 정인 원로위원 수덕

총무원

총무부장 우담 교무부장 선각 규정부장 헤오 환경위원장 헤득 사업부장 청명

총무원장 법정

행정원장 도경 교육원장 청담 비구니부장 설봉

사정원장 법륜

포교원장 동화

문화원장 진승

비구니부장 법학 청명

총무원

경북1총무원장 월정 경북2총무원장 해산 서울1총무원장 일휴 강원1총무원장 연정

경북2총무원장 성덕 대구1총무원장 광덕 경기1총무원장 원담 전라1총무원장 법도

경북3총무원장 헤득 대구2총무원장 해산 충청1총무원장 계현

구족계 및 포살 보살수계 산림대법회 안내

일시 : 불기 2557년 8월 25일 일요일(음 7월 19일) 오후 1시
장소 : 대구광역시 북구 유통단지 90 SCO 구관 3층 306호

- 입종구비서류 -

- 사찰 및 승려등록 신청서 1부
- 반명함판 사진 3매
- 주민등록증 앞 뒤 사본 1통
- 승려증 발급 하실 분은 필히 수계첩 및 승려증 사본 첨부
- 도첩은 본 종단에서 수계를 받은 분에 한하여 발급합니다.